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net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세상의 빛이 되는 〈광림교회 실천목회〉 배우고 갑니다!"

미국 애즈베리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비슨트립 10월 21일(월)~28일(월)까지 열려

"광림교회에서 애즈베리신학교의 목회학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큰 축복이며, 특별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목회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 광림교회 방문

광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라는 사명을 갖고 국내외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광림교회의 목회 비전을 배우고자 미국 〈애즈베리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비슨트립〉 목회자와 교수 35명이 10월 21일(월)부터 28일(월)까지 광림교회를 방문했다.

교회와 세상을 가슴에 품는 실천적 복음을 따르기로 널리 알려진 애즈베리신학교는 목회학 박사 3년의 과정 중 마지막 학기에 광림교회를 방문해 목회현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이 학교의 대표적인 교육과정 중 하나인 비슨(Beeson)트립은 미국의 비슨 일가가 세운 '비슨 인터내셔널 센터'에서 매년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등 20여 개국의 영향력 있는 목회자 40여 명을 선발해 공부할 기회를 주어 세계적인 영적 리더로 세우고 있다.

비슨트립 일행은 10월 22일(화) 먼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에 참석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광림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라는 말로 반갑게 맞이했다. 깊이 있는 성경 말씀을 진지한 자세로 열심히 공부하는 성도들과 함께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에 참석하고, 여선교회가 주관하는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센터 건축을 위한 '애장품전'에도 참여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아름답게 지어진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를 방문했고 독립한 일산광림교회도 둘러보았다. 광림교회의 부속시설인 광림수도원, 세미나하우스, 비전랜드와 사랑의 집을 찾아 세상을 섬기는 광림교회의 목회철학을 배웠다.

영국 감리교회에서 파송되어 광림교회에 2년간 인턴으로 있었던 마이클 라비 목사 후보생도 이번 애즈베리 비슨트립에 참여했다. 그는 "광림교회에 인턴으로 있으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고, 김정석 담임목사님의 추천으로 애즈베리 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감리교회 목회자가 되어 광림교회 목회를 전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경험한 광림교회 목회를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소개했다.

일행은 총력전도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각 교구의 다니엘기도회에 참석해 생생한 목회 현장을 경험했고, 이후 교역자들 심방에도 동행했다. 24일(목) 저녁에는 김정석 담임목사의 특강을 통해 광림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솔트 플랜 교회인 '춘천이음교회'를 방문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서로 돕고 상생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성장하고 자립하기 위해 광림교회가 어떤 상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비슨트립팀을 인솔한 토마스 텀블린 박사는 "광림교회에서 애즈베리신학교의 목회학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큰 축복이며, 특별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목회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오늘 27일(주일)에는 대예배와 교회학교, 사랑부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광림교회와 함께한 은혜로운 일정을 마무리한다.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2 광림의 강단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굳은 결심
3 광림 스토리 장로은퇴예배, 끝까지 봉사할 것
4 총력전도 특집 광림의료선교회, 캄보디아 봉사
6 믿음의 현장 광림의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
7 특집 러시아에 퍼진 광림의 향기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제4회 청년 작가 초대전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굳은 결심

예수님처럼 나눌 때, 회복과 축복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18:18~23)

오늘 본문 말씀은 삶의 공허함과 메마른 갈증 속에 사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관리'이자 '큰 부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18절) 다시 말해 이 청년의 질문은 "내가 어떤 선행을 행해야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까?"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20절)

>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자 청년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22절)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는 것,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자 청년은 영생을 갈망하며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18절)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20절)고 알려주십니다. 혹자는 우리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영생 얻는 길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 삶의 기반들, 이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정의 삶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욕망 때문에 헛된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통해 기쁨이 넘치는 복 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18~23
18.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9.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22.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둘째, 관계성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이웃 간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이 말씀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39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관계성의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웃에게 나눠줄 때 일어납니다.

저희 집 앞에 예수님을 안 믿는 쌍둥이가 이사 왔습니다. 오가면서 쌍둥이의 얼굴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한 녀석이 저를 따라오더니 저희 집에 들어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하고 집에 있는 사탕을 하나 줬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냉큼 받더니 "아저씨 이따 또 와도 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동생과 같이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신호등 앞에서 아이를 또 만났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저씨" 하며 저를 넙죽 끌어안았습니다. 참 귀엽고 예뻤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 베풀 때 이웃 간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땐, 그들의 조건이나 어떤 명분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길을 가는데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갑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한 말은 헬라어로 '아카르디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같은 길을 간다' '같이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으며 영생을 얻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목회연구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30

하나님이 부르시는 끝날까지 봉사할 것

10월 20일(주일), <장로은퇴예배>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려



광림교회 전통을 따르고 교회 여러 기관의 위원장으로 봉사하며 신앙의 본이 되었던 장로 11명에 대한 <장로은퇴예배>가 10월 20일 주일 저녁 예배시간에 열렸다. 10년에서 20년 이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은퇴식을 가진 장로는 송영우, 김인정, 심재옥, 최한업, 안종원, 김용배, 신성섭, 조기숙, 이수인, 정은기, 신덕철 총 11명이다. 남성성가단 찬양과 김정석 담임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서울남연회 최현규 감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디모데후서 4:6-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현규 감독은 "은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은퇴는 신앙 성숙을 향한 또 다른 출발이며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자세히 돌보지 못했던 교회 일들을 두루 살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저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장로님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정석 담임목사는 은퇴하는 장로들에게 기념패를 증정했으며, 남/여선교회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는 화환 및 예물을 전달했다.

감람교회 이기우 목사는 축사를 통해 광림교회 장로들이 보여준 여러 덕목들을 나열하면서 "믿음 좋고 겸손하며 교회에 충성하고 성도의 본이 되며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제는 교회를 위해 멀리 보는 혜안과 도움이 필요한 교우들을 자세히 살피고 돕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은퇴장로를 대표하여 인사말씀을 전한 안종원 장로는 "장로 취임식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은퇴예배를 드리니 세월의 빠름을 실감한다. 부족한 저희 장로들을 한결같은 사랑과 기도로 이끌어주신 김선도 감독님과 김정석 담임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교회 사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감독님의 축도 뒤 퇴장하는 은퇴장로들에게 참석한 성도들은 모두 기립해 그동안 헌신을 아끼지 않고 수고한 은퇴장로들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유병권 기자 ybkpower@empas.com

애즈베리 목회학 박사과정 대상, 김정석 담임목사 특강





매년 광림교회의 실천목회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미국 애즈베리목회학 박사과정 목회자들은 10월 24일(목) 각 선교구별 심방동행 후 김정석 담임목사와 함께 목회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심방을 통해 그들은 성도를 향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관심,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며 소감을 이야기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한국의 사회적 상황과 선교적 현실에 관해 이야기하며 광림교회의 목회를 소개했다. 각자 다른 상황 가운데서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목회적 본질에 대해 고민하며 광림교회의 목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교회 성장의 차원을 넘어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며, 개인적 성화가 교회를 통해 사회적 성화로 확장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광림의 목회적 관심이 성도들을 향한 돌봄과 책임에 있다는 것을 소개하며, 주일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고 있는지 설명했다.

애즈베리 목회자들은 광림교회의 심방, 속회, 어린이 교육, 청년 선교 등, 돌봄의 목회에 대해 궁금해했으며, 문화의 충돌과 사회의 이슈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광림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지교회, 독립교회, 광림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솔트 플랜(SALT PLAN) 교회 등을 방문한 후 10월 28일 돌아갈 예정이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오늘은 총력전도주일, 새가족들을 하나님 품으로



"지난 1년은 제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던 제가 가끔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번에 우리 딸을 전도하게 되었어요"라며 작년 광림교회에 처음 나온 하지연 성도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10월 총력전도의 달을 보내는 광림 교인들의 마음속엔 온통 '전도' 생각뿐이다. 하지만 거룩한 부담감만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달이다. 광림의 각 선교구는 다니엘기도회로 모여 기도하고, 교구별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노방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한다. 또 가까운 가족, 친지, 이웃들과 직장 등에서 관계성전도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인도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총력전도주일인 오늘 27일, 밀레니엄공원에는 교구별로 펼쳐진 파라솔 아래에서 풍성한 결실로 맺은 새가족들의 환영으로 분주하다.

낯설고 어색해하는 새가족들은 인도자와 함께 첫 예배를 드리고, 김정석 담임목사의 영접기도와 광림 성도들의 축하 속에 새가족위원회로 인도된다. 이후 선교구 목사와 전도사, 양육위원들과 함께 교회와 예배에 대해 배우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움을 받는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포토 뉴스



사회사업위원회 특강

10월 20일(주일) 오후 12시 30분 웨슬리관 지하 3층 예배실에서 사회사업위원회 김연수 권사(서울대병원장)의 특강이 있었다.



여선교회 개체선교회 <애장품전>

10월 22일(화), 광림교회 밀레니엄공원에서 선교를 위한 여선교회 개체선교회 <애장품전>이 열렸다.



총력전도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

10월 23일(수) 분당에서 총력전도를 위한 5선교구 15교구 다니엘기도회가 열렸다.

담임목사 동정



10/16	목원대 신학대학원 채플 및 장학금전달식
10/20	장로은퇴예배
10/22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10/24	애즈베리 비슨트립 특강
10/25~26	실업인선교회 추계영성수련회
10/27	총력전도주일

감독 동정



10/13	광림남교회 주일예배
10/20	광림서교회 주일예배
10/20	장로은퇴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내 인생의 말씀

기도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

고등학교 배정 결과를 선생님께서 불러주실 때, 저는 너무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기쁜 이유는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고등학교여서, 놀란 이유는 너무 먼 여자고등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게 될 학교는 여고 중에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거리 상 멀어서 배정받기 어려운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학교를 놓고 기도하신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그 유명한 여고를 가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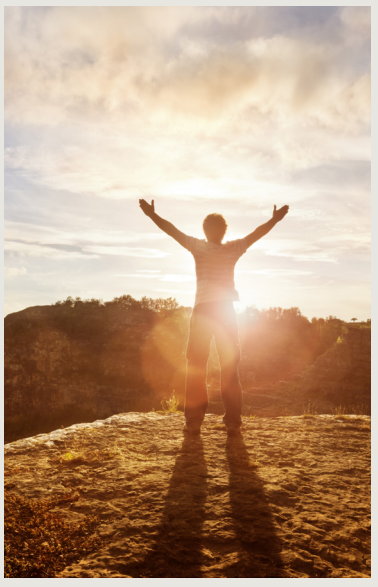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7)

항상 저를 위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 덕분에 저는 지금 누구보다 귀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 정남식 집사와 아들 정지후. 삶이 힘들고 지쳐 때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에도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아들의 입술에서 주일날 들은 말씀을 이야기하며 저에게도 기도를 부탁할 때면 저의 믿음이 다시 회복하게 되고 새 힘을 얻습니다.

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신 어머니를 기억하며 저 또한 남편과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 엄마가 되길 원합니다.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눈처럼, 저의 기도를 통해 믿음 안에 거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히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1:33~36)

이현주 성도(중등1부 교사)



〈캄보디아 한인선교사대회〉에서 빛난 광림의료선교회

복음의 불모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 위해 치료하며 헌신



2019년 7월 말 여름 휴가철에 이미 3개국 해외의료선교 사명을 감당한 광림의료선교회에 〈캄보디아 한인선교사대회〉를 섬기는 또 다른 미션이 봄부터 조용히 시작되었다. 의료진들이 진료현장인 병원을 비우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한 해에 두 차례 이상 해외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광림의료선교회 회원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만으로 뒷일은 염려하지 않고 모두가 참여했다.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저녁 출국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까지 진료현장에 있다가 공항으로 갔다. 귀국 날 새벽에도 꼬박 밤 비행에 시달렸지만, 대부분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다. 그러나 피곤한 기색에도 의료선교 회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왔다는 성령 충만의 기쁜 마음이 가득했다.

복음의 불모지, 불교국가 캄보디아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는 한인선교사님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은 그 어떤 의학적 치유 프로그램보다 완벽했다.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적 치유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선교사님 단독이 아닌 그들의 온 가족까지 함께 참여하여 회복되는 시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감히 'All Exclusive Recovery & Healing Program'이라 말할 수 있는, 누군가는 꼭 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이 사명이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준비되어 진행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3일간의 모든 진료과정을 진두지휘하며 목, 코, 귀 질환을 진료한 정하원 장로와 총무 역할을 감당한 이비인후과 홍석진 집사, 캄보디아 현지에서 가장 접하기 힘든 치과 진료를 감당한 최한업 장로, 수많은 허리, 무릎, 퇴행성 관절질환을 양한방 협진으로 해결한 정형외과 최동호 장로, 한의사 정 벌 성도가 각각 진료를 담당했다. 그리고 가장 다양한 환자군인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 질환은 신재은 성도가 소아과와 함께 진료했으며, 소화기내과와 대장항문외과 질환은 외과 김진섭 장로가 담당하였다.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인한 각종 피부질환은 안효원 권사, 성인 남성의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준 비뇨기과 신명국 권사, 고령화에 따른 필수 치료항목인 안질환을 현장에서 해결한 안과 민경협 집사, 가장 인기가 좋았던 초음파 검사는 영상의학과 박철민 권사가 수고해주셨다.

또한 선교사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치과 불소도포는 의대생 안탁민 성도가 불굴의 실력을 발휘했고, 삼총사 간호사들 주원화 권사, 오희순 권사, 김경란 집사는 근육주사, 혈압, 혈당 측정, 접수 문진 등으로 헌신해 주었다. 쉼 없이 밀려드는 처방전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 우숙희 권사, 최현실 권사와 세 분의 동역자 이화열 권사, 신향희 권사, 장순영 집사가 가장 늦게까지 힘들게 수고해주셨다. 광림의료선교팀의 손길은 잠시 스치고 떠나지만, 캄보디아 한인선교사와 그 가족들은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각종 병마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선교 사명에 전념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도 해외 한인선교사들을 섬기는 이 의료사역이 우리 광림의료선교위원회 회원들의 헌신을 통해 지속되어 나가기를 소망한다.

김진섭 장로(광림의료선교회)

'장수사진'으로 웃음도 드리고 복음도 전해요!

"하하하" "어르신 활짝 웃으세요."

지난 10월 25일(금)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노인정에서는 어르신들의 장수사진 촬영이 있었다. 이날 촬영은 광림교회 21교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장수사진을 찍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건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남겨 드리고 싶어 마련된 자리다. '장수사진'은 영정사진의 다른 말로, 미리 찍어두면 무병장수한다는 의미가 있다.

조수진 권사(새신자 양육위원)는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전도와 새신자 양육에 관한 의견을 나누던 중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을 하며 우연히 알게 된 거주민의 높은 연령층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장수사진'이라는 맞춤전도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21교구 성도들은 10월 한 달 다니엘기도회로 모여 '장수사진' 촬영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했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뜨거운 관심 속에 행사 홍보와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헤어 등의 재능기부가 이어졌다. 사진 촬영은 한성사진관의 도움으로, 의상은 한순례 한복, 메이크업과 헤어는 교구 성도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위해 십



시일반 성도들의 후원금이 모아졌다.

첫 촬영은 홍보지를 보고 가장 먼저 교회에 찾아오셨던 어르신이었다. 곱게 한복으로 갈아입고 환한 표정으로 렌즈를 바라보시는 어르신의 모습은 모두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사진 촬영을 마친 어르신은 "평소 영정사진을 찍어야지 하고 생각만 했지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자손들에게 신경 안 쓰이게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줘 너무 고맙다"고 했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21교구 성도들은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도록 따뜻한 차와 다과를 대접했다. 촬영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이어졌고, 늦은 시간까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계속되었다.

정용식 목사(7선교구)는 "촬영한 사진은 보정 작업 등을 거친 후 액자로 제작,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많은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 세례까지 이어지기를 기도드린다"고 했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사랑부 〈가을운동회〉, 하나님과 함께 뛰었어요!

10월 13일(주일),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에서 열려



많은 인원이 함께한 단체축구에서는 남학생들뿐만 아니라 여학생들도 함께 공을 차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부모님과 사랑부지체들 함께 기쁨 만끽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제5회 사랑부 가을운동회〉가 지난 10월 13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현대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야외 운동회를 위해 장소와 날씨를 두고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와 장소를 주셔서 사랑부 가을운동회를 야외에서 할 수 있었다.

가을운동회는 준비운동으로 시작하여 믿음팀과 소망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OX게임과 판뒤집기, 큰공굴리기, 풍선날리기, 단체축구, 보물찾기 등 부모님과 사랑부 지체들이 다양한 게임을 함께 어울리며 즐겼다.

가을운동회에서 사랑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큰공굴리기'이다. 경쟁을 넘어 큰 공을 굴리고 싶어서 길게 줄을 서고, 경기가 끝나도 끝까지 큰 공을 굴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한 부모님과 교사의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많은 인원이 함께한 단체축구에서는 남학생들뿐만 아니라 여학생들도 함께 공을 차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공을 보고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열심히 뛰며 골을 넣은 여학생도 있었다.

이번 사랑부 가을운동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씨와 장소 가운데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보냈다. 열심히 참여한 모두가 우승이라는 말과 함께 모두가 우승상품을 받고 기쁨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김현진 전도사(사랑부)

다음세대를 신앙의 회복으로 이끄는 복음의 통로

〈중등부 트리니티 & 학부모 학교〉, 11월 10일(주일), 17일(주일) 오후 2시 본당 나사렛성전



광림교회 교회학교 중등부는 2019년 11월 10일(주일)과 17일(주일) 오후 2시 본당에서 2주간 〈중등부 트리니티 & 학부모 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및 앞으로 자라날 다음세대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들을 초청한다.

학부모학교 강사로 초빙된 '오선화 작가'는 청소년들의 멘토 '써나쌤'으로 알려져 있는 작가이다. 그녀는 실제로 교회학교 교사를 꽤 오래했고, 청소년부에서는 교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모아 '비전반'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을 꾸준히 만나고 있다.

그의 저서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를 주제로 부모와 사춘기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자녀들의 사춘기, 학업, 친구문제와 습관 등 책에 소개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자녀들의 고민을 나눔으로 공감과 배려, 사랑으로 아이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번 학부모 학교를 통해 가장 작은 교회라 일컫는 가정에서서부터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대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교육2부 도신우 목사는 "부모들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파송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며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회복, 신앙 회복이 일어나 자녀들의 발걸음이 다시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홍민기 전도사(중등부)



신앙 간증

삶에 지쳐있다면 선교에 동참해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 이것만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최소한 나는 아니다. 개인적인 문제들도 아뢰는데, 선교는 그런 기도를 사치라고 느끼게 만든다. 세계 곳곳에서, 북한에서, 굶어죽는 영혼들. 억울하게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이 내 기도 제목을 듣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학업, 직장, 사업, 연애, 결혼, 자녀, 노후 문제 등. 사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니다. 똑같이 귀한 기도지만, 자칫 기복신앙으로 변질되기 쉽기에 매 순간 경계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마 19:24)는 말씀처럼, 당장 가진 것들을 포기할 수 없고 삶과 신앙 사이에서 지쳐있다면 선교를 강력히 권면하고 싶다. 선교를 통해 내 삶의 문제들은 사치가 되고, 기도제목이 바뀌고,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누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선교는 몇몇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거창한 게 아니다. 매년 여름 청년부 주관의 국내선교, 또 교회학교나 가정, 직장의 모든 곳이 선교지다. 심지어 성지인 이스라엘, 우리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과 영국 같은 믿음의 선배나라들도 지금은 선교가 필요한 곳이다.

이번에 다녀온 일본은 복음화율이 1% 미만인데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환경이다. 평범해 보이지만 집집마다 안방에 신당이 있고, IMF 때 홀로 가족을 위해 일본으로 넘어간 우리 국민들도 많다. 그분들의 상처를 간접적으로나마 옆에서 보고 느끼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된다.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있지만,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번 일본선교를 통해 절실히 느꼈다. 선교가 필요 없어 보였던 일본도 선교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느꼈듯이 선교는 아무런 기도와 행함 없이는 어떤 것도 느끼고 판단할 수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 3:6)

상대가 누구건, 가진 게 있든 없든, 기도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본을 보인다면 그것이 선교다. 선교를 너무 무겁게, 특별하게 생각했다면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시작해보는 것을 권해본다.



박현재 성도(청년부)

믿음의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라!

- 목회현장 -



안계현 목사(5선교구)

놀이동산에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파리'가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에서부터 아프리카 초원에서나 볼 수 있는 동물들까지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파리'에서는 건빵 몇 개로 버스만큼 키가 큰 불곰을 춤추게도 하고, 코끼리에게 사람의 말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야생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육사의 손에서 우유를 먹고,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먹고 자랍니다. 생각해보면 겉모습은 정글의 왕이요, 밀림의 제왕이지만, 5평 정도의 좁은 우리의 주인이 된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동물 세계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야성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거룩한 야성을 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담대히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일본의 압제 속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가 거룩한 야성의 충만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이 땅의 소금으로 녹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데, 현재 한국교회 신앙의 모습은 마치 '우리 속 애완동물'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심방을 다니다보면 '우리 속 애완동물'이 아니라 야생에서 훈련받은 강한 맹수를 만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계획되지 않는 문제가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마치 광림교회의 첫 번째 전통인 '적극적인 신앙'의 실체를 보게끔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거룩한 야성 앞에는 실패나 좌절, 육신의 한계점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대산 정상에서 주님의 영성 깊이 느껴

- 광림남교회 -



빨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가을, 광림남교회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리고 청년부가 모여 지난 10월 9일(수) 강원도 평창 진고개휴게소를 기점으로 노인봉을 거쳐 소금강관리소까지 약 15km의 <제1회 광림남교회 오대산 등반>을 진행했습니다. 남교회 선교회 임원, 회원과 청장년부 및 교역자들은 가벼운 등산복장으로 새벽 5시 남교회에서 버스로 출발, 8시부터 김황호 목사님의 기도와 함께 첫 걸음으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확 트이는 가을 풍경과 쾌청한 날씨가 주는 기대감에 모두 기분은 업 되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노인봉으로 향하는 많은 계단을 오른 뒤부터는 조금씩 힘이 들었습니다. 젊은 청장년부와 한참 어른이신 권사님들이 한 조에 섞여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격려하고 함께 보조를 맞춰 걸어갔습니다. 잠시 쉬면서 맞은 시원한 바람에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을 식혀주었습니다. 사실, 노인봉 정상까지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정상에서 세상을 위한 기도와 은혜로운 찬양, 시원한 바람으로 마음까지 청량했습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은 너무 많은 계단 탓에 다소 위험했고, 발목과 무릎에 무리를 주어 조원들은 하나둘씩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목사님이 계단에서 발을 헛딛어 인대를 다쳤지만, 걱정을 뒤로 한 채, 땀으로 흠뻑 젖은 옷과 거친 산행길에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계곡을 따라 내려오며 한 폭의 그림 같은 폭포에 손을 담갔고, 푸르른 금강송, 화려한 단풍의 멋스런 경치에 험한 산행 생각은 잊게되었습니다. 다들 이 아름다운 풍경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기 바빴습니다.

예정보다 약 4시간이 더 소요되었지만, 모두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먼저 병원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은 목사님 또한 큰 부상은 아니어서 감사했습니다.

늦은 저녁, 누구 하나 불평없이 꿀맛 같은 식사를 했고, 모두 기억에 남는 하루였다고 웃으면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가족들과 하루 편히 쉴 수 있는 공휴일이었지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세대가 어우러져 산행을 하여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산행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격려한 모습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제였을 것입니다.

대회를 주관한 양상식 장로(광림남 남선교회회장)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이기에 힘쓰는 광림남교회는 이번 첫 산행을 통해 세대통합과 리더육성을 위한 영성훈련의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총평을 내놓았습니다.

백동철 권사(광림남교회)

우리교회 이래서 좋아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가 균형 잡힌 하나님 중심의 교회





디지털문화가 사회 전 분야와 계층에 폭넓게 스며든 현대대중문화의 물결 속에서, 교회의 전통 예배가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런 시대를 사는 요즘 교회들은 열린 예배를 추구하며 예배 형식을 바꾸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열린 예배는 전통 예배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신세대 중심의 비신자들이 교회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현대 대중문화와 음악을 주로 하여 예배가 진행되는데, 성도들은 화면으로 띄워주는 성경과 찬송으로 성경책 없이 예배에 참석한다. 예배의 모든 행위는 대부분 무대에서 행해지고 회중은 그저 행위를 감상하는 관객 같은 인간 중심의 예배라 할 수 있다.

반면 전통예배는 형식이 다소 진부해 보이는 면은 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걸러진 신앙의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성경 교독문을 교독하고, 신앙고백을 함께하는 등 예배 순서마다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의미가 깊고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다.

올해 66주년이 된 광림교회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전통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 나가고 있다. 주일 3부예배는 CTS기독교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목회행정기획실 정존수 목사는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타 교회 교인들 중에 광림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며 예전에 예배드린 시절이 그리워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정 목사는 "광림교회의 전통 예배를 사랑하는 전국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예배를 소중하게 지켜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제주도 강정마을에 사는 안성실 성도가 CTS를 통해 광림교회 예배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며 서울의 광림교회까지 찾아와 선교헌금을 건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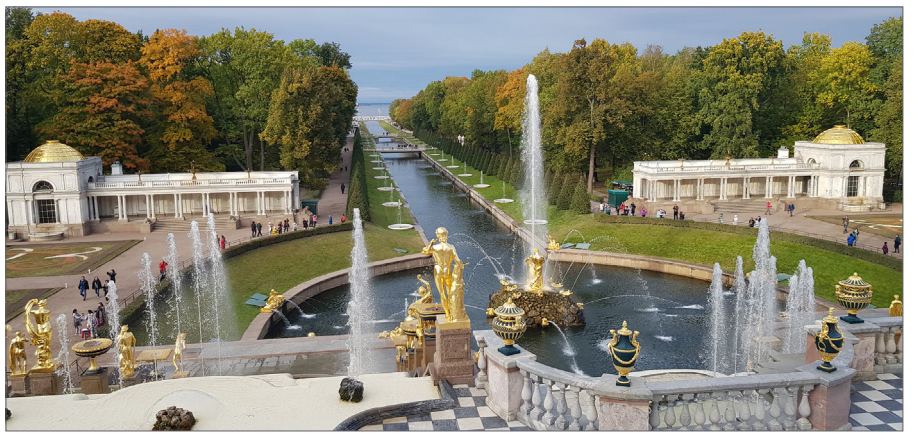
반면, 광림교회는 전통 예배의 형식을 잘 유지하면서도 열린 예배를 선호하는 젊은이들의 동시대성을 무시하지 않고, 2000년 초반부터 4부예배를 열린 예배로 드리고 있다. 또한 시대의 편리에 따라 한국교회에서 사라져 가는 주일 저녁예배도 성심껏 드리고 있다. 더불어 매월 마지막 주일 저녁예배는 음악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예배에 정성을 쏟고 있다.

이처럼 광림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소중히 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균형 잡힌 목회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런 끝없는 열정으로 광림은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교회로 남아 있을 것이다.

백명순 기자 bmsoon@naver.com

화려함 속 아픔 있는 러시아 역사, 그곳에 퍼진 광림의 향기

〈2019 광림미션트립〉 세계 곳곳에 복음의 씨앗 뿌린 시간 (2)



여행은 만남입니다. 나라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 나라의 역사와의 만남입니다. 선교여행에는 또 하나의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과의 만남입니다. 러시아와 그 땅의 사람들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팀은 이번 러시아 선교여행에서 그 땅과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길 기도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길 간절히 기도하며 선교여행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러시아 정교회의 성당들입니다. 러시아 역사는 러시아 정교회와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당들이 건축되었습니다. 붉은 광장 앞에 서 있는 성 바실리 성당, 성 이삭성당, 에르미타쉬 박물관과 겨울궁전 내부에 있는 황금으로 가득한 성당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함과 웅장함 속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함 속에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착취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정러시아 왕조와 구소련을 통해서 지배당했던 수많은 민족들의 아픔의 역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한 부분이 고려인입니다. 추운 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시작되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강제로 수십만의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수개월 동안 이동하여 추위와 배고품의 고통과 아픔에 죽어갔던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려인 다음 세대들이 광림교회를 통해 세워진 모스크바 광림선교센터와 베다니교회에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땅과 상처와 아픔을 가진 고려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땅 끝, 발칸 해협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의 탈린에서 우리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신학교 광림채플에서 만난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자신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러시아와 자기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의 마지막에서 우리 모두는 러시아의 땅 끝에서 감독님과 담임목사님, 수많은 믿음의 선배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림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라타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광림교회의 향기는 계속해서 땅 끝을 향하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전원석 목사(1선교구)

〈2019 제2회 광림유스컵 축구대회〉 중고등부 대상으로 진행 중



〈2019 제2회 광림유스컵(Youth Cup)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광림 유스컵은 광림교회 일대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축구대회로, 총 7개 팀(현대고, 압구정고, 경기고, 서라벌고, 영동고, 중동고, 신사중)이 참가 중이다. 이 대회는 10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주간 리그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매 주일 오후 1시 30분 신사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다. 이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선수의 대다수가 광림교회 중고등부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로, 이 대회를 통해 새 친구들이 교회로 연결되고,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지난 10월 20일 주일에는 고등 1부에서 광림유스컵 개막예배로 드려졌고, 60여명의 학생선수들이 페어플레이 선서식을 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에 참가한 고등2부 이민준 학생(중동고)은 "내가 다니는 광림교회 축구대회에 학교 친구들을 데려와 축구를 할 수 있어서 재미가 배가 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했다.

고등1부 이호중 학생(영동고)은 "학교 친구들과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만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고 전했다.

이 대회 총괄 감독 김상문 집사(중등 2부)는 "귀한 대회이자 우리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집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광림유스컵 축구대회를 통해 교회에서 즐거운 추억들이 생기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생기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도신우 목사(교육2부)

친교의 장, 선교의 장, 문화의 장, 카페 〈루체 포레〉


문찬수 장로가 기증한 작품

빛의 숲길, 광림사회봉사관(강남구 신사동) 1층 '루체 포레'에 들어서면 은은한 커피 향기와 함께 반가운 웃음들이 하나 가득이다. 예배를 마친 성도들은 선교회, 속회 식구들을 다시 만나는 반가움에 저절로 발길이 루체로 향한다.

평일에도 이웃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는 이곳에 아름다운 그림 2점이 새로 걸렸다. 작품을 기증한 문찬수 장로(의료선교회위원장)는 "금동원 작가의 〈사유의 숲-Happy tree pink,100x80,Serigraphy〉과 〈치유의 숲-The Garden of Innocence,100x80,Seriegraphy〉을 루체 포레에 기증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품마다 화사하고 강렬한 밝은 색상으로 '색채의 시인'으로 불리는 작가는 자연에서 채취한 나무, 꽃, 물고기 등의 다양한 사물을 오방색상을 이용하여 화폭에 창의적인 감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아 유쾌한 풍경으로 나타냅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 루체 포레가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유와 치유를 주는 문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루체 포레는 교회와 이웃들이 함께 소통하는 곳이다. 성도들의 친교의 장이며, 빛의 숲길을 따라 주님의 향기가 나는 선교의 장이 되고 있다. 또 단순한 카페 기능을 넘어 교회와 지역 사회의 접목지대 역할을 한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교회 부속기관으로 대외적인 행사에도 만남과 휴식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루체 포레 관리위원장 고은경 권사는 "루체 포레는 전문 자격증을 가진 다수의 봉사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카페 수익금 전액은 여선교회 선교 사업에 쓰여지고, 올해 수익금으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센터 건축기금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루체 포레에서는 쿠폰을 발행하여 새신자들과 교회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한 선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베이커리,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봉사로 더 많은 이웃들과의 소통을 통해 선교의 터전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사랑과 친교의 장소, 문화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

[찾아가는 인터뷰 11회]
서성훈 원로장로 (17교구)

광림교회 역사의 산증인, 서성훈 장로
평생 하나님과 교회만 섬겨


서성훈 원로장로

"과거를 돌아볼 때 가장 은혜로웠던 때는 첫째, 쌍림동 시절 어렵게 시유지 땅을 불하받아 그 위에 교회를 건축했을 때고, 둘째는 신사동으로 이전하여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오는 11월 3일은 광림교회 창립 66주년 기념주일이다. 광림교회는 초대 민응식 목사가 '광희문교회'로 창립하였으며, 1971년 제5대 김선도 담임목사가 부임한 이후 교회 성장이 크게 이루어져 교회당을 새로 건축하게 되었다. 이 무렵 교회 명칭도 광림교회로 바뀌게 되었는데, 처음 있었던 광희동과 새로 교회가 들어선 쌍림동의 글자를 섞어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광희문교회 시절부터 출석하여 누구보다 광림교회 역사를 잘 아는 서성훈 장로를 만나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광림교회는 언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어머니가 광희문교회에 다녔고, 따라서 신앙생활 전부를 광림교회에서 보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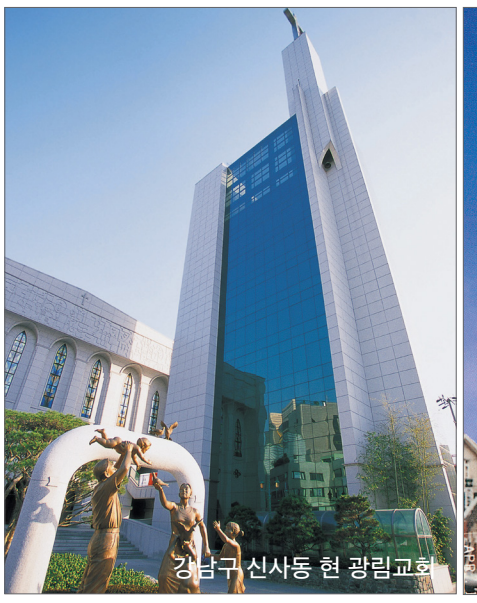
젊은 시절 교회에서 한 일은?
대학생 때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청년부 활동을 하였는데, 당시 김선도 목사님이 솔선수범하면서 교회를 잘 이끌었고, 교인들도 모든 일에 열심으로 잘 따라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주일학교가 오후 늦게까지 있었고, 통금이 가까이 될 때까지 젊은이들이 빵집에 모여 교회 일을 의논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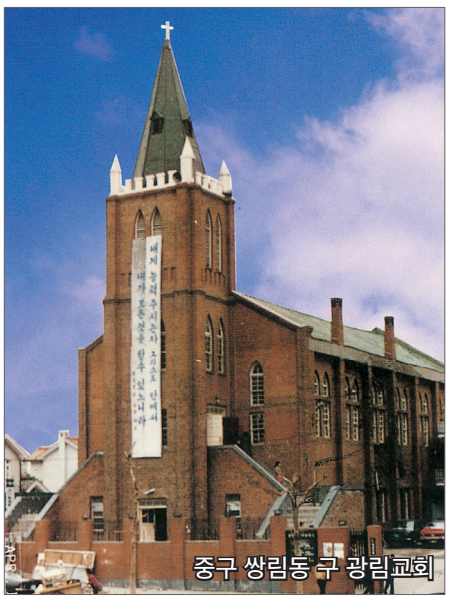
쌍림동 시절의 광림교회를 이야기한다면?
김선도 목사님이 부임했을 때, 교인수는 200명 남짓이었는데, 매주 예배 후에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전도를 하였고, 그 결과 교인수가 500명, 1천명, 2천명으로 급격히 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철근이 들어가지 않는 벽돌로만 지어져, 더 이상 교인이 늘어나면 붕괴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교회를 이전키로 하였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가장 은혜로웠던 때는?
첫째는 쌍림동 시절 어렵게 시유지 땅을 불하받아 그 위에 교회를 건축했을 때고, 둘째는 신사동으로 이전하여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당시 비포장 도로에다 버스도 다니지 않아 과연 교인들이 찾아올까 걱정했는데, 예배가 시작될 무렵 멀리서 먼지를 날리며 많은 교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셋째는 신사동에 와서 교회 입당예배는 드렸지만, 교회에 빚이 있으면 봉헌식을 할 수 없는데, 이를 다 갚고 봉헌예배를 드렸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광림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셨습니까?
교사 봉사로 30년 가까이 했으며, 빌레몬선교회(현 실업인선교회), 누가선교회(현 의료선교회), 빌립선교회(현 교수선교회) 및 매스컴선교회 창설에도 관여했습니다. 건축위원장 시절 교육관, 광림수도원 및 사랑의 집을 봉헌하였습니다. 평생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강남구 신사동 현 광림교회


중구 쌍림동 구 광림교회

〈제4회 청년작가 초대전〉 안지아, 이진영 작가의 기독교 세계관의 작품들


안지아 作 <Traditional>


이진영 作 <기쁨>

광림미술인선교회(회장 민선홍 권사)에서는 2016년에 만 25~45세의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광림미술인선교회 청년부(부장 이시원 성도)'를 만들고, 광림교회 청년작가들을 발굴해 영성 깊은 기독미술인으로 육성하며 기독교 세계관의 작품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공모전 〈물맷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올해 제4회 물맷돌 프로젝트 공모에서는 안지아 성도(12교구)가 선정되었다. 장천갤러리에서는 10월 6일(주일)부터 11월 1일(금)까지 열리는 〈제4회 청년작가 초대전〉에는 안지아 성도와 광림미술인선교회 청년작가 이진영 집사(20교구)가 초대되어 2인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안지아 작가는 독일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영상디자인 학사,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 중이며, 디자인 회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주보를 통해 물맷돌 프로젝트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선정이 되어서 기쁘고 설렌다는 마음을 전했다.

안 작가는 "어릴 적부터 화실에서 밤늦도록 그림을 그리면서 미술을 해왔지만, 디자인 전공을 하면서 컴퓨터와 씨름하게 되자 '아! 그림만 그리면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실제 전시를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 미술로 사람들을 치유해주거나 미술을 매개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안이 되고자 미술심리치료 상담사 자격증을 딴 적이 있고, 학부 때 태블릿에서 '감정 다이어리(Emotion diary)'라는 제목으로 네모 칸을 채워가며 선과 면을 통해 감정을 일기처럼 표현하기도 했어요. 석사과정을 하면서 교수님과 '이화여자대학교 재능기부 이화씨드 봉사동아리'를 만들어 어린이 디자인 교육을 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디자인으로 어떻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독교 교육과정 개발 실습' 수업을 통해서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자본주의의 세계관이 어떻게 아이들 교과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라며 미술을 통한 그간의 다양한 활동들을 피력했다. 또한 "이 전시 기회를 통해 제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표현하고, 더 책임감 있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미술로 선교하려는 소망들이 모인 곳에서 제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무겁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도예전공 이진영 작가는 "더 많은 청년 미술인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주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길 바라며, 그 사역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광림미술인선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라고 하며 "장천갤러리는 전시장소인 동시에 저희 부부가 사랑부 교사로 섬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사랑부 예배가 매주 열리는 장소라 사랑부 학생들이 오며가며 제 작품을 볼 수 있어 더욱 기쁘고 감사합니다. 미술이 목적이나 우상이 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는 청지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변영혜 기자 yhbyun1010@hanmail.net

편집인 김대영 | 위원장 박영준 | 간사·편집디자인 이화목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옥이 김재현 김혜경 박신애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이득섭 이상희 이선아 이정순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net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